

# “우승은 언제나 즐겁지만 ... 이젠, KIA 가을잔치에 올인”

## 임기영 투수 인터뷰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 주역  
팀 승리에 최선을 다해야  
오늘 넥센전 선발 등판  
KIA 순위싸움 전면에 나서



한국 야구 대표팀의 금메달에 힘을 보탠 ‘잠수함’ 임기영이 이젠 팀의 가을 잔치를 위해 나선다.

KIA 타이거즈의 임기영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승리투수와 함께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돌아왔다.

중국과의 슈퍼라운드 2차전 선발로 나서 6.1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임기영은 팀 동료인 양현종과 안치홍의 ‘한일전’ 활약 속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음고생을 털어낼 수 있었던 활약과 성과였다. 임기영은 지난 시즌 선발 한 자리를 책임지면서 KIA 우승의 주역이 됐다. 시즌이 끝난 뒤 참가한 2017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APBC)에도 호투하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어깨 부상 여파로 올 시즌 성적에 좋지 못했다.

기복 많은 시즌을 보냈던 만큼 대표팀 발탁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 하지만 임기영은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기영은 “위에 뛰어난 형들이 많이 있어서 부담 없이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었다”며 “중국전 등판에 앞서 우리팀이 홍콩, 일본과 경기를 하면서 중간투수들을 많이 썼다. 무조건 길게 가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경기하면서 생각했던 것과 느낌이 달랐다.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생각에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변에서 좋은 말을 해주셔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마음에 쏙 드는 피칭은 아니었지만 이번 대회는 임기영의 야구 키를 키운 소중한 시간이었다.

“한국시리즈 우승할 때도 그렇고 우승은 언제나 정말 좋은 것 같다”며 활짝 웃은 임기영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아 무겁다. 좋다’고 생각했다(웃음). 그리고 애국가가 나올 때는 기분이 이상했다. 다른 나라에서 태극기를 달고 댄다는 게 특별한 것 같다. 훌륭한 선수들과 야구를 하면서 배운 것도 많다”고 말했다.

나라를 대표해서 마운드에 올랐던 임기영은 이제는 ‘호랑이 군단’을 대표하는 투수로 순위싸움의 전



면에 나선다. 임기영은 7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등장해 승리를 거둔다.

임기영은 “대표팀은 끝났다. 이제 대표팀은 과거 나가 앞으로 해야 할 것 준비를 잘하고, 좋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앞을 내다봤다.

자신과 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직구’다. 임기영은 “대표팀에 가서 타자 선배들에게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지 물어봤다. 직구를 이

야기했다. 구속에 비해 공 꺾이 좋았는데 올 시즌은 그게 좋지 못하니까 쉽게 맞아 나간다고 그랬다. 체인지업도 올 시즌 오락가락했다. 정우람 형에게도 체인지업을 많이 물어봤다”며 “캐치볼 할 때도 회전을 더 주려고 하고 있고, 몸 쓰는 것에도 신경 쓰고 있다. 이제는 팀 승리에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젤라라 봉 카르도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슈퍼라운드 2차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한국 선발투수 임기영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랜만에 등판 유승철 “생존 위한 몸부림에 힘만 넘쳐” 이종범 위원 “정후는 광주 오면 공이 크게 보인다더라”

### 덕아웃 T 특특

▲ 힘만 넘쳐어오 = 오랜만의 등판에 힘만 넘쳐던 유승철이었다. 지난 8월 11일 팔꿈치 통증 등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유승철은 지난 5일 두산 베어스와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1이닝 1피안타 무실점.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제구 등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유승철은 “힘만 넘쳤다. 오랜 등판이라 힘이 들어갔다. 불펜에서 나쁘지 않았는데 밸런스가 좋지 못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아쉬워했다.

▲ 그냥 넘어오 = 훈련보다 청소가 더 힘들었던 임기영이다. 임기영은 친구 김윤동이 ‘결벽증’이라고 할 정도로 깔끔한 성격이다. 그만큼 임기영은 아시안게임 대표팀 현지 숙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임기영은 “밖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내부 상태가 좋지 못했다. 청소하려고 칫솔도 샀었다”며 “하지만 나중에는 해도 티가 하나도 나지 않

아서 그냥 봤다”고 웃었다. 한편 임기영은 이번 대표팀에서 안치홍, 양현종과 룸메이트 생활을 했다.

▲ 광주에서는 공이 크게 보인다는데 = KIA 덕아웃을 긴장시킨 이종범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의 한마디, “공이 크게 보인다”였다. ‘바람의 아들’이 위원은 최근에는 ‘이정후의 아버지’로 통한다. 지난 시즌 신인왕에 빛나는 이정후는 올 시즌에도 맹활약하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위원도 국가대표팀 코치로 참가하면서 부자가 금메달을 합작했다. 6일 넥센과의 경기 중계를 위해 고향을 찾은 이 위원은 KIA 덕아웃에서 많은 축하의 인사를 받았다. 자연히 이정후에 대한 이야기도 쏟아졌다. 하지만 웃음이 넘치던 KIA 덕아웃에 잠시 후 환승이 나왔다. “정후가 이상하게 광주에 오면 공이 크게 보인다고 한다”는 이 위원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KIA 킬러로 통하는 이정후는 6일 경기 전까지 광주에서도 0.458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수비가 도움 안주네” ... 류현진 메츠에 5실점 패전

### 6이닝 11피안타 3자책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즌 5승 대신 2패째를 떠안았다.

류현진은 6일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속아냈으나 안타 11개를 맞고 5실점했다. 야수의 도움을 받지 못해 류현진은 자책점(3점)보다 많은 점수를 줬다.

다저스는 3-7로 패해 류현진은 시즌 2패(4승)째를 당했다. 2013년 메이저리그 진출 후 통산 3승 무패를 달리던 메츠에 첫 패배다.

류현진의 최고 구속은 148km. 공 88개를 던져 64개를 스트라이크로 쫓았다. 빗맞은 타구가 많았고, 야수들의 글러브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났을 정도로 불운했다.

류현진은 개인 통산 4번째로 한 경기 최다인 안타 11개를 허용했다. 지난달 27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다.

류현진은 3회까지 삼진 4개를 속아내며 9명의 타자를 완벽하게 요리했다. 그러나 타선이 한 바퀴 돈 4회 한꺼번에 3점을 줬다.

토타자 아메드 로사리오에게 중전 안타, 제프 맥닐에게 우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맞아 무사 2-3루 위기를 맞았다. 곧이어 윌버 플로레스가 친 타구는 류현진의 왼쪽 발을 맞고 1루수 쪽으로 굴렀지만, 그 사이 주자가 홈을 밟았다.

이어진 무사 1-3루에서 류현진은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 한숨을 돌렸다.

곧바로 마이클 콘포토를 앞둔 좌익수 파울플라이로 유도했고, 홈으로 뛰던 3루 주자를 잡아내는 듯했다. 하지만 포수 야스마니 그란달이 송구를 제대로 잡지 못해 태그에 실패했다. 2사 3루에서 류현진



류현진(31·LA 다저스)이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와 홈경기 1회에 등판, 메츠의 아메드 로사리오를 상대로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오스틴 잭슨에게 우전 안타를 맞아 3점째를 줬다.

맥시 먼시의 우중월 투런 홈런으로 2-3으로 따라붙은 5회초, 류현진의 투구는 아쉬웠다.

첫 타자 케빈 플라웨키에게 좌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맞았고, 브랜던 니모에게 중전 안타를 내줘

도 고비를 맞았다.

하위 타자들에게 안타를 헌납한 류현진은 1사 1-3루에서 로사리오에게 우전 안타를 내주고 4번째 점수를 줬다. 2사 1-3루에서도 플로레스에게 좌중간 적시타를 허용했다.

/연합뉴스

## 이용대, 코트에 돌아온다

### 2018 빅터 코리아오픈 출전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며 국제대회에 쉽게 출전하지 못했던 이용대(30·요넥스)가 2년 만에 빅터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에 복귀한다.

이용대는 김기정(28·삼성전기)과 남자복식조를 결성,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500 대회인 2018 빅터 코리아오픈 대회에 출전한다.

코리아오픈은 2년 전 이용대의 국가대표 고별 무대였다.

당시 유연성(수원시청)과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를 지키던 이용대는 2017 코리아오픈 남자복식 우승으로 완벽한 고별전을 꾸미고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이용대는 14년간 국가대표를 지내면서 짊어졌던 부담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국내 대회에 출전하는 등 배드민턴 라켓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국가대표 은퇴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기는 쉽지

않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가 아닌 남자 31세, 여자 29세 이하 선수는 국제대회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성현(김천시청), 신백철(김천시청) 등이 규정에 반발한 선수들이 협회와 법정 싸움을 벌여 지난 5월 2심에서 승소,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선수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길이 열렸다.

이용대-김기정은 지난주 ‘바르셀로나 스페인 마스터스 2018’에서 새로 호흡을 맞췄고, 단숨에 남자복식 우승을 거머쥐면서 힘찬 새 출발을 했다. 고성현-신백철도 지난달 베트남오픈에서 남자복식 우승을 거두면서 국제대회 활동을 재개했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단식 손완호(인천국제공항), 여자단식 성지현(인천국제공항), 여자복식 이소희(인천국제공항)-신승찬(삼성전기) 등 현 국가대표 간판선수들도 대거 출전한다.

남자단식 세계랭킹 1위 빅토르 악셀센(덴마크)과 린단(중국), 모모타 겐토(일본) 등 세계적인 배드민턴 스타들도 총집결한다. /연합뉴스

### 오타니 17·18호 홈런 ... 4안타 5출루 맹활약

팔꿈치 수술을 권고받은 날, 일본인 투타 겸업 선수 오타니 쇼헤이(24·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17, 18호 홈런을 몰아치며 아시아 출신 선수의 메이저리그 첫 시즌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을 세웠다.

오타니는 6일 열린 2018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방문경기에서 에인절스의 3번 지명타자로 출전에 홈런 두 방을 포함한 4타수 4안타를 치고

3타점 4득점을 올렸다. 볼넷으로도 한 차례 1루 베이스를 밟아 이날 다섯 번의 타석에서 모두 출루했다.

특히 이날 두 번의 아치를 그려 시즌 홈런 수를 18개로 늘린 오타니는 2006년 시애틀 매리너스 소속 조지마 겐지(일본)가 세운 아시아 선수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 최다 홈런 기록도 함께 갱신했다. /연합뉴스